

금강경과 문화예술 ①

류종민 교수(중앙대 명예교수)

문명·문화 시야 확대... '무위세계' 도래

지난 주 금강경과 법철학에 이어 이번 주에는 본각선교원에서 진행하는 금강경과 문화예술을 만나본다. 불법의 핵심이 담긴 금강경에서 인류 문명을 읽어낼 수 있는 코드를 2주에 걸쳐 찾아보기로 한다. 정리=배현진 기자

금강경 통해 문화의 지향점 찾기

금강경은 세존께서 깨달으신 후 설하신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의 방대한 경전 말씀 중 그 밝기가 정오에 해당하는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이 경으로부터 모든 부처님이 출현하신다고 말씀하신 반야부 600부 중에서도 뛰어난 경전이다.

인류문화가 진화한 이래 최상의 지혜경전이라는 금강경과 오늘의 문화예술을 접목해 그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일은 시대를 성찰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문화적 모형을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이 될 것이다.

금강경은 제법무상, 제법외상, 열반적정의 삼법인을 내포하는 무위세계의 본질이 깃든 최상의 반야지혜이다. 또한 오늘의 문화예술은 인류가 발전시킨 무위세계의 모든 기술과 생활과 정신의 총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금강경을 통해 문화를 살펴보는 일은 유위를 넘어 무위세계에 근접해보는 일일 것이다.

과연 인류의 문화와 문명은 어디까지 발전할 것이며 그 바람직한 지향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술은 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창출해 나갈 것인가? 이는 오늘을 사는 인류의 대명제가 아닐 수 없다. 금강경의 지혜와 함께 이 명제를 비추어 보자.

종교와 예술의 맞물림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유위법의 세계를 환영과 순간의 세계로 표현하시고 참다운 본원의 세계에 깨어 있도록 응작여사관(應作如是觀)하신 말씀은 오늘날의 번잡한 문화생활에서도 흔들림 없이 보살심을 유지하는 지침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란 규범 속에서 홀로그램(Hologram)의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다. 문명의 진보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는 다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과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개념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또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뿐만 아니라 광속계를 떠나 타키온으로 구성된 초광속계가 있으며 다중우주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까지 유추하게 되었다.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문명과 문화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5안으로 실상을 통투하시니 여래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무너져 없다.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마음도 불가득이며 삼천大千세계를 구성하는 미진과 일합상의 관계도 범부의 사랑과 다르다.

중국 역사학자 주검지(朱謙之)는 문명의 발전 과정을 종교, 철학, 과학, 예술의 단계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단계는 다시 다른 3단계의 분화로 비추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종교의 입장에서 종교적 철학, 종교적 과학, 종교적 예술이 되었고 예술의 관점에서는 예술적 종교, 예술적 철학, 예술적 과학으로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의 최종 단계인 예술의 측면에서 보면 종교, 철학, 과학이 예술의 관점에서 조명될 수 있으며 이것은 종교철학을 바탕으로 한 예술의 개화가 역으로 예술의 관점에서 종교철학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오늘날의 문화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종교적 예술로서 인도에서부터 중국 한국 일본과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자카르타등 불교가 성한 동남아 각국에서 이와 관련된 방대한 문화유산을 볼 수 있다. 서구에서도 문화의 발전상에 따라 신전과 성당의 예술적 장엄의 변모를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예술적 종교라는 코드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인간정신을 고양시킨 많은 예술적 공헌이 과거 종교를 통해서 현현 되었으나 이러한 종속관계는 오늘날 찾아보기 힘들며 문화로서의 종교와 예술은 인간정신의 위대한 발로로서 각각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금강경의 각본에 비추어 본 문화예술

1) 법회인류문의 기원정사와 탁발

기원정사는 기수금고독원의 약칭으로 기타태자의 땅을 금고독장자가 숲속에 건립한 정사다. 지금도

금강경 통해 문화 살피는 일은

유위 넘어 무위에 근접하는 것

보살심 유지하는 지침 되기도

벽들로 된 법당과 정사의 유적이 남아 있고 이곳에서 부처님이 일체중생지자를 아홉 가지로 나눈 데에는 깊은 뜻이 있다.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범위는 무한하고 거기에는 무념의 생명, 생각이 없는 생명까지 포함된다.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범위를 지구에 국한하는 시야에서 벗어나 문화와 문명이 확대됐을 경우를 고려해야 된다. 우리는 좁은 시야로서 생명을 한정했지만 부처님 말씀하신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까지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무념의 생명, 생각이 없는 생명까지 포함된다.

이것이 다 내 속에 있는 생명들이고 서로 연기를 이루고 밖에 나타나 있는 생명들의 모습이기도 한데, 백성육박사는 일차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중생을 멀도하면 무위로 투사 되어 있는 중생도 멀도 될 것이라고 해석하신 것이다.

2) 대승정중문의 항복기심과 구류중생

금강경의 요체인 3분의 항복기심과 구류중생은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승려이자 정치가, 교육자인 백성육 박사는 각자의 마음속에 구류중생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마음을 정화하여 멀도하는 것을 일차적 항복기심으로 보았는데, 그러면 자연 바깥으로 일어난 중생도 사라질 것이라 했다. 이는 오늘날 임상심리학에서 자가 치료를 하듯, 구류중생의 마음에 근접해 내부의 심적상태를 정화하는 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구류중생의 문화적 해석은 태, 란, 습, 화의 생물적 해석 외에도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의 방대한 해석이 있다. 물질화 되어 있는 유색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무색은 형상이 없으니 볼

수가 없는데 여기까지도 부처님은 중생이라고 보셨다. 중생의 종류는 이렇듯 광대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불성을 지닌 생명존재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범주로 보면 몸이 물질화돼 있는 곳에 있으므로 우리는 태생이고 유색에 속하는 존재다. 그러나 물질이 아니다하는 분별도 멀도 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생각이 있기도 하고 생각이 없기도 한 중생(有想, 無想)에 대해서는 해석이 어렵다. 생각이 있다고 하면 생명체는 당연히 유상이고, 개유불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생각이 없다고 하는 그 속에도 생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바위나 책상에도 불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현대 문명에 비취 살펴보자.

무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현대물리학의 강입자 이론에서, 물체 속 입자들이 불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서로 부딪치지 않는 현상을 두고 말하는 상호교신하는 의식의 존재유무와 이 의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다. (Carpra, The tao of physics) 라이프니츠 또한 모나드(monad)라는 마음의 입자와 비슷한 단자론을 내세운 적이 있다. 물론 이는 가설에서 머물렀지만 앞으로 더 발전된 이설

무주상보시 통해 문화 격조 높여

무유정법 또한 문화예술의 요건

오늘의 문화는 유위에서 무위로

이나를지는 두고 볼 일이다.

부처님이 일체중생지자를 아홉 가지로 나눈 데에는 깊은 뜻이 있다.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범위는 무한하고 거기에는 무념의 생명, 생각이 없는 생명까지 포함된다.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범위를 지구에 국한하는 시야에서 벗어나 문화와 문명이 확대됐을 경우를 고려해야 된다.

우리는 좁은 시야로서 생명을 한정했지만 부처님 말씀하신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까지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무념의 생명, 생각이 없는 생명까지 포함된다.

이것이 다 내 속에 있는 생명들이고 서로 연기를 이루고 밖에 나타나 있는 생명들의 모습이기도 한데, 백성육박사는 일차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중생을 멀도하면 무위로 투사 되어 있는 중생도 멀도 될 것이라고 해석하신 것이다.

3) 복지사회의 문화와 보시의 적극적 의미

물질화된 금세기 문화에서 금강경4분 보시의 의미는 나눔의 행복으로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덕목이며 물질에 천착되어 있는 탐심을 정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닦아야 할 제일바라미이다. 조건 없는 무주상 보시를 행할 수 있다면 오늘날 문화는 혼탁하지 않고 한결 높은 격조와 향기를 지닐 것이다.

4) 약견제상 비상(若見諸相 非相)의 궁극적 표현



류종민 교수는... 서울대 미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조소학과 교수와 예술대학장을 거쳤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당시에는 <불교문화 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간행했고 불교문화와 유산과 조형예술에 대해 연구과제를 삼아 시집으로 <천강의 달그림자> <달 향아리> <빛의 길> 등을 냈다. 저서로 <오늘의 금강경>이 있으며 <한국문화와 불교>와 다수 논문도 집필했다.

"만일 모든 상(相)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는 5분의 말씀을 시각예술로 표현할 수 있다면 아마 많은 이들이 놀랄 것이다. 그러나 사실재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한 사진작가는 여기서 진리를 발견하고 이를 표현 하는데 중점을 두기도 했다. 그 작가의 작품은 개념미술이나 모노크롬(monochrome)의 단색화에서 보이듯 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상은 있으나 재상이 비상인 경지,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만날 수 있는 본질적 세계이며 시각예술에서의 궁극적 화두이기도 하다.

여러 논의 끝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전시될 예정인 국보83호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일본 국보1호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서양의 고뇌상과는 다른 언어로 표현한 부처님 세계의 정일한 사유상이다.

5) 무유정법(無有定法)의 문화와 해석

금강경7분제 '아늑다라삼막삼보리라' 이름할 정해진 법이 없으며 정해진 법이 없음을 여래가 설하신다'고 했다. 정해진 법은 여실한 법이 아니며 위없는 보편타당의 바른 진리도 아니라는 말인데 이를 오늘날 문화에 적용해보자. 진리라고 믿었던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뀐 사례 외에도 오늘날 패러다임의 전환은 문화의 극점에서 항상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각 시대의 문화에는 그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양식적 특성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흐름일 뿐이고 어느 양식이 다른 양식보다 더 우수하다는 법칙은 없다. 문명에는 진화의 개념이 있으나 예술

적 측면에서 본 문화에서는 진화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 예술은 진화보다는 그 시대와 조응하면서도 정해진 법의 테두리를 뛰어 넘으려는 자유의지가 있다.

무유정법은 범주에 갇히기 쉬운 인간정신의 창달을 위해서도 또한 계속 시야에서 이탈하려는 인간정신의 고양을 위해서도 오늘날 문화예술이 가져야 할 요건이다.

6) 금강경의 무위법과 오늘의 문화

금강경은 무위법이라 할 수 있으며 유위법의 무상함을 비추어 보게 한다. 그러나 일체법을 개시불법(一切法 皆是佛法)이라 하여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나누지 않았다. 문명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오늘날의 문화는 유위에서 무위로 향해 가는 듯하다. 예를 들면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는 유위는 손만 갖다 대면 물이 나오는 무위로 진화되어 가고 사람이 없을 때는 불이 꺼져 있다가 사람이 있으면 불이 켜지는 감지기능의 발달은 점점 유위보다 무위가 상위라는 인식을 들게 한다.

이것이 더 진화되면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까지 감지해서 한 생각이 행동의 유위성 없이 그대로 실현되는 무위세계가 점점 도래 할 것이고 무위법이 상위법이 될 날이 올 것이다. (계속)

이 원고는 본각선교원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미리 간추려 소개한 것입니다. 본각선교원 (02)762-4848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납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사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걸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듯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험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격의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94년도 보이차 茶

본초강목습우(本草綱目拾遺)

"보이차고는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보이차는 장을 원활하게 하여 그 움직임이 걸림이 없게 한다. 보이차는 까만 옷 빛깔과 같은데 술을 깨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다. 보이차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담을 풀어주며 위장의 운동을 촉진하여 그 즙을 잘 생기게 하는 바, 그 효능은 참으로 크다. 입안에 목에 상처나 염증이 있으면, 차고를 5분정도 머금으면 다음날이면 낫는다. 데었을 때도 상처에 바르면 치료된다."

사모채방(思茅採訪)

"소화를 도와주며 한랭한 기운을 몰아내고 해독작용을 한다."

백초경(百草經)

"풍이 생기거나 음식이 잘 다스려지지 않거나 화기가 일때.... 보이차 두잔을 끓여서 복용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운이 모두 밖으로 나온다."

청나라 오대운(吳大勳)의 전간경문록

"보이차의 효능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기를 다스린다. 막힌 것을 뚫고, 풍한(風寒)을 치료한다. 사람에게 가장 유용한 물건이다."라고 극찬.

물리소지식(物理蘇知識)

"보이차는 찌서 덩어리로 만드는데, 서번에서 사 갔으며, 모든 물건을 잘 소화한다."

수식거음식보(隨息居飲食譜)

"차는 약하게 쓰고 달며, 찬기운이 있다. 보이차는 맛과 기운이 강하고 세며 구토, 풍, 가래에 좋고 고기를 잘 소화시키고 장염이나 이질, 콜레라도 치료한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94년도 산차 120g

차통(자사) 크기 : 높이 9cm × 지름 7cm

◆ 가액 : 11만원 (택배비 무료)